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윤리성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 · 주온주¹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 ¹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Hye-Kyung Lee · On-Ju Ju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ju-vision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ye-Kyung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ju-vision University, Cheonjam-ro(St), 235 Beon-gil(Rd), Wansan-gu, Jeonju-si 560-760, Korea, Tel : +82-63-220-4102, Fax : +82-63-220-4109, E-mail : hglee@jvision.ac.kr

Received: 12 March 2015; Revised: 1 May 2015; Accepted: 26 Ma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657 dental hygiene students in J region from November 10 to December 10, 2014.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The study instrument consisted of ethical type and self-esteem by Liker 5 scale. Ethical type was adapted from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by Forsyth and self-esteem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osenberg instrument. Cronbach alpha was 0.850 in ethical type and 0.840 in self-esteem.

Results: Ethical typ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higher idealism of 3.87 and relativism of 3.59. Self-esteem was 3.49. Extroverted personality tended to show higher self-esteem. Age, monthly income of parents, family atmosphere had an influence on self-esteem.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tudy was 35.0%.

Conclusions: The ethical type and self-esteem were the important factors to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dental hygiene, ethical type, idealism, relativism, self-esteem

색인: 상대주의, 윤리성향, 이상주의, 자아존중감, 치위생과

서론

현대의학의 발전은 의료기관 전문화와 함께 경쟁 심화를 야기하였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개인 소유형태를 띤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 의료와 수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보다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더욱 주력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¹⁾,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상황에 맞는 윤리적 기능이나 제도적 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차 의료기사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 물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올바른 윤리 가치관의 정립과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치위생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고도의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성해 나가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시절에 확립된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은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즉,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윤리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졸업 후 이들이 행하게 될 전문적 치위생 행위와 직결되며,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이에 치과의료 현장에서 인간의 구강건강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주체이며, 이들이 옹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성향의 의식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Schlenker와 Forsyth³⁾와 Forsyth⁴⁾는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본적 요소로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두 가지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주의 성향은 윤리적 판단시에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에 따라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상대주의 성향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반영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고려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상대주의 성향은 낮게 측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절대적 도덕률만으로는 새로이 제기되는 윤리적 난제들에 대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최근 대학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인 직업윤리와 치위생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에 윤리적 가치관, 윤리이론과 원칙을 포함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의료현장에서 타전문직과 협력하면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을 신뢰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올바른 윤리성향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⁵⁾.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⁶⁾.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을 독려하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주위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며 현실과 미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치위생직무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자신과 환자에 매우 유익할 것이므로⁵⁾, 미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윤리성향을 연구하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윤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었다. 조사 시기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657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불충분한 설문지 57부(8.7%)를 제외한 600(91.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및 윤리적 성향에 관한 문항 20개, 자아존중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한⁵⁾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나타내었다.

2.1. 윤리적 성향

윤리적 성향은 Forsyth⁴⁾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EPQ)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이상주의 성향 10문항과 상대주의 성향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주의 성향은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 시에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에 의해 판단하려는 성향이고, 상대주의 성향은 보편적인 윤리법칙보다는 상황에 의해 윤리성을 판단하려는 성향이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다고 해석하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성향과 상대주의 성향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50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⁷⁾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40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value를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윤리성향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윤리성향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윤리성향의 관련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은 $p < 0.05$ 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18~20세 52.0%, 종교는 무교가 62.7%, 성적은 평점 3.6~4.0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300~399 만원미만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분위기는 64.0%이 화목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격유형은 보통이다(49.3%), 외향적이다(29.3%), 내향적이다(16.0%), 아주 외향적이다(5.3%)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윤리성향 및 자아존중감 인지 수준

대상자의 윤리성향 및 자아존중감 인지 수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윤리성향에서는 이상주의 성향이 3.87 점로 상대주의 성향은 3.59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N	%
Age(y)	18~20	312	52.0
	21~22	248	41.3
	23~25	32	5.3
	26≤	8	1.3
Religion	Christianity	160	26.7
	Catholic	40	6.7
	Buddhism	16	2.7
	No religion	376	62.7
	Others	8	1.3
GPA(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5.3
	2.5~3.0	96	16.0
	3.1~3.5	184	30.7
	3.6~4.0	240	40.0
	Higher than 4.0	48	8.0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Unit: million won)	<200	144	24.0
	200~299	144	24.0
	300~399	176	29.3
	400~499	72	12.0
	≥500	64	10.7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1.3
	Not a harmonious	8	1.3
	Normally	200	33.3
	It is harmonious	240	40.0
	It is very harmonious	144	24.0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16.0
	Normally	296	49.3
	Extroverte	176	29.3
	It is a very extrovert	32	5.3
Total		600	100.0

Table 2. Subject of ethical type and self esteem cognitive level

		N	Mix	Max	Mean±SD
Ethical type	Idealism	600	3.00	5.00	3.87±0.43
	Relativism	600	2.70	5.00	3.59±0.51
Self-esteem		600	2.10	5.00	3.49±0.60

Table 3. Self-esteem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steem			
		N	Mean±SD	F(t)	p-value*
Age(y)	18~20	312	3.43±0.60 ^b	8.712	<0.001
	21~22	248	3.55±0.61 ^b		
	23~25	32	3.43±0.35 ^b		
	26≤	8	4.40±0.00 ^a		
Religion	Christianity	160	3.61±0.54 ^a	6.466	<0.001
	Catholic	40	3.54±0.30 ^a		
	Buddhism	16	3.60±0.96 ^a		
	No religion	376	3.45±0.73 ^a		
	Others	8	2.60±0.56 ^b		
GPA (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3.40±0.52 ^b	0.438	<0.001
	2.5~3.0	96	3.45±1.82 ^b		
	3.1~3.5	184	3.50±0.54 ^a		
	3.6~4.0	240	3.51±0.60 ^a		
	Higher than 4.0	48	3.55±0.33 ^a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Unit: million won)	<200	144	3.33±0.61 ^b	32.734	<0.001
	200~299	144	3.34±0.51 ^b		
	300~399	176	3.38±0.49 ^b		
	400~499	72	3.90±0.51 ^a		
	≥500	64	4.01±0.64 ^a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3.10±0.00 ^{bc}	25.527	<0.001
	Not a harmonious	8	2.90±0.00 ^{bc}		
	Normally	200	3.23±0.61 ^c		
	It is harmonious	240	3.55±0.51 ^a		
	It is very harmonious	144	3.80±0.59 ^{abc}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3.33±0.41 ^{bc}	7.375	<0.001
	Normally	296	3.47±0.58 ^c		
	Extroverte	176	3.56±0.68 ^{ac}		
	It is a very extrovert	32	3.85±0.68 ^{ab}		

*by the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at $\alpha=0.0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Table 3>과 같다. 연령은 26세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적은 평점이 4.0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평점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또한, 가정분위기는 매우 화목하다가 3.80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격유형은 외향적일수록 자아존중감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은 <Table 4>와 같다.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26세 이상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기

Table 4. Ethical typ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Idealism				Relativism			
		N	Mean±SD	F(t)	p-value*	N	Mean±SD	F(t)	p-value*
Age(y)	18~20	312	3.88±0.41 ^b	15.818	<0.001	312	3.65±0.56 ^c	11.844	<0.001
	21~22	248	3.84±0.43 ^b			248	3.46±0.43 ^{bc}		
	23~25	32	3.70±0.33 ^b			32	3.83±0.40 ^a		
	26≤	8	4.80±0.00 ^a			8	4.10±0.00 ^{ab}		
Religion	Christianity	160	3.97±0.54 ^a	5.563	<0.001	160	3.78±0.64 ^{ab}	12.719	<0.001
	Catholic	40	3.98±0.30 ^a			40	3.70±0.47 ^{ab}		
	Buddhism	16	3.60±0.21 ^b			16	3.30±0.21 ^{ac}		
	No religion	376	3.83±0.38			376	3.51±0.44 ^a		
	Others	8	4.00±0.00 ^a			8	3.00±0.00 ^{bc}		
GPA(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4.20±0.53 ^a	7.837	<0.001	32	3.28±0.53 ^b	3.615	<0.01
	2.5~3.0	96	3.78±0.28 ^b			96	3.57±0.37 ^a		
	3.1~3.5	184	3.80±0.49 ^b			184	3.59±0.64 ^a		
	3.6~4.0	240	3.91±0.38 ^b			240	3.61±0.48 ^a		
	Higher than 4.0	48	3.89±0.45 ^b			48	3.68±0.31 ^a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Unit: million won)	<200	144	3.96±0.34 ^{ac}	1.146	<0.001	144	3.53±0.48 ^c	12.785	<0.001
	200~299	144	3.86±0.41 ^{ac}			144	3.64±0.54 ^{ac}		
	300~399	176	3.71±0.46 ^{bc}			176	3.46±0.50 ^{bc}		
	400~499	72	4.11±0.40 ^{ab}			72	3.93±0.53 ^{ab}		
	≥500	64	3.85±0.41 ^{ac}			64	3.51±0.33 ^c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3.79±0.00 ^b	5.506	<0.001	8	3.80±0.00 ^a	5.778	<0.001
	Not a harmonious	8	3.79±0.00 ^a			8	2.90±0.00 ^b		
	Normally	200	3.86±0.45 ^b			200	3.66±0.54 ^a		
	It is harmonious	240	3.80±0.38 ^b			240	3.54±0.35 ^a		
	It is very harmonious	144	3.97±0.47 ^b			144	3.58±0.68 ^a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3.88±0.35 ^a	4.451	<0.01	96	3.66±0.43	1.258	0.288
	Normally	296	3.88±0.44 ^a			296	3.55±0.56		
	Extroverte	176	3.89±0.42 ^a			176	3.60±0.51		
	It is a very extrovert	32	3.90±0.52 ^b			32	3.63±0.26		

*by the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at α=0.05

독교와 천주교의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서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적에서는 평점 2.5미만 대상자에게서 이상적 윤리성향은 4.20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상대적 윤리성향은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400-499 만원에서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이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가정분위기에서는 매우 화목하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이상적 윤리성향이 3.97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상대적 윤리성향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66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격유형은 아주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이상적 윤리성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5.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의 하위요인 관련성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의 하위요인 관련성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이상적 윤리성향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6.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 분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윤리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0% 였으며, 연령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가정분위기, 이상적 윤리성향 요인과의 관련

Table 5. Self-esteem and ethical factors relevant to the type

Division	Self-esteem	Idealism	Relativism
Self-esteem	1		
Idealism	0.370**	1	
Relativism	0.124**	0.381**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able 6. Factors related to self-esteem

Division	B	SD	β	t	p-value*
constant	0.265	0.267		0.992	0.322
Age(y)	0.132	0.030	0.144	4.361	<0.001
GPA(Grade point average)	0.023	0.021	0.038	1.111	0.267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Unit: million won)	0.133	0.017	0.280	7.815	<0.001
Home atmosphere	0.174	0.026	0.246	6.684	<0.001
Personality type	0.040	0.029	0.052	1.390	0.165
Idealism	0.525	0.051	0.374	10.356	<0.001
Relativism	-0.046	0.044	-0.039	-1.048	0.295
F=41.359,(p<0.001), R ² =0.359, Adj R ² =0.350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총괄 및 고안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사회현상은 치과의료계에서도 예외적일 수 없으며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윤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협력적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올바른 윤리적 성향의 확립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윤리적 성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Rosenburg⁷⁾의 자아존중감 척도와 Forsyth⁴⁾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EPQ) 척도를 활용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윤리적 성향을 근거로 2가지 윤리성향으로 구분하여 이들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치위생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성향은 이상주의 성향이 3.87로 상대주의 성향 3.59보다 높게 조사되어 여러 선행연구⁸⁻¹⁰⁾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윤리적 판단 시에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에 의해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이슈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행동을 하게 된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간호 및 물리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11,12)}와 일치된 결과로 치위생과 학생들 역시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개념인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낮고 부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성장의 한 단계에서가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 진출하는 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가정을 가져야 하는 중간단계로서 준비하는 시기이며,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이다¹¹⁾.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문적 교육 접근 방법 연구를 통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용할 있는 제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와 한의 연구⁵⁾와 유사한 결과로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성숙되며 자신감 또한 상승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성적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과 이¹³⁾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자신의 학습 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가정이 화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홍¹⁴⁾의 연구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모님의 경제적수준, 가정분위기 및 양육방식이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위축감과 공격성이 낮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 등¹⁵⁾과 Larsen RJ와

Ketelaar¹⁶⁾의 연구결과에서 외향성이 강한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치위생 교육기관은 인성을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동반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¹⁷⁾. 따라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전공실습, 실무적 활동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외부활동을 통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조직의 구성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전공분야의 만족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치위생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이상적 윤리성향과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가정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35.0%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와 한⁵⁾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로서 이상적 윤리성향이 행위 자체에 따라 판단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믿고 있는 반면, 상대적 윤리성향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도덕적 행위가 달라지는 보편적 가치관을 믿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보다 윤리적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결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충전하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홍¹⁴⁾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정보다는 사회가, 사회보다는 학교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내적 평가도구로서 중요한 심리적 특질이고 사회적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¹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의 성공경험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지하며, 졸업 후 신규 치과위생사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횡단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모든 치위생과 학생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을 파악하고, 윤리적 성향과의 관련성 연구가 미흡했던 치위생 분야에 새롭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6,11,12,18)}에서 연관성이 제시되었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치위생 교육 및 직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J지역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6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성향은 이상주의 성향이 3.87로 상대주의 성향 3.59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고,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높고, 가정분위기는 화목하고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은 이상적 윤리성향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0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이상적 윤리성향, 연령,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가정분위기와 관련성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35.0% 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의 가치관 정립과 윤리적인 사결정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치위생 교육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Kang SI. Professional ethics in dentistry. Korean J Med Ethics 2002; 107-27.
2. Jung HY, Jung KI.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2; 18(3): 37-48.
3. Schlenker B, Forsyth DR.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 Exp Soc Psychol 1977; 13: 369-96.
4. Forsyth DR.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 Pers Soc Psychol 1980; 39: 175-84.

5. Lee SJ & Han GS.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ethical propensity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2; 12(5): 503-10.
6. Lee MS, Chae K.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J Korean Cognitive Behavior Therapy* 2012; 12(1): 63-75.
7. Rosenberg M.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 Psychoiatr Res* 1962; 1: 135-52.
8. Lee SJ, Han GS.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KAOH* 2012; 36(3): 238-48.
9. Park HS. Evaluating the ethics of controversial advertising issues and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J Advert* 2000; 11: 147-63.
10. Kim JY. The ethical values and ethical behavior of the preservice music therapists. *Korean J Music Ther* 2011; 13: 57-74.
11.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09; 15(1): 54-63.
12. Kim EA, Lee GC, Bae WS, Kim C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physiotherapist and self-esteem of physiotherapy students. *J Korean Soc Phys Med* 2013; 8(1): 19-27.
13. Jang SH, Lee SH.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 17(4): 395-406.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4.395>.
14. Hong SH.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parenting. *Korean Soc child welfare* 2004; 17: 151-77.
15. Kim CS, Cheon SH, Cho 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type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6): 943-9.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6.943>.
16. Larsen RJ, Ketelaar T.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states. *J Pers Soc Psychol* 1991; 61: 132-40.
17. Kim JY.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4): 503-9.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4.503>.
18.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3): 217-25.